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김택준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상담자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에 근무 중인 111명의 상담자들과 그들이 상담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내담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상담자 역전리와 작업동맹의 효과를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와 내담자들은 4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111명의 상담자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 작업동맹 질문지, 상태-특성 불안 질문지가 실시되었고, 모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상담자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간의 관계는 상담자 상태불안에 의해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작업동맹 형성에 있어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작업동맹 및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전이 관리능력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역전이 관리능력, 작업동맹, 상태불안, 역전이

* 본 논문은 김택준(2014)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 5번지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현대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정서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상담성과 및 효율적인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관계 속에서 생활과제의 해결 및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으로 정의된다(이장호, 1995). 이러한 상담 및 심리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로운 상담관계는 상담성과 및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신뢰로운 상담관계를 의미하는 범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작업동맹(working alliance)은 상담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되며(Gelso & Carter, 1994; Horvath & Greenberg, 1989; Horvath & Symonds, 1991; Mallinckrodt & Nelson, 1991; Martin, Garske, & Davis, 2000; 신회천, 2002)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연구자들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업동맹은 상담관계의 주체가 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 및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는 작업동맹형성과정에 기여하는 각기 고유의 역할과 영역을 가지게 된다(Bordin, 1979; Greenson, 1965). 작업동맹 형성에 기여하는 이러한 상담자, 내담자 요인 중 특히 상담자 요인은 내담자 요인에 비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직접적으로 내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Hayes & Gelso, 2001) 특히 최근 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위한 상담자 요인의 비중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김현숙, 2012).

상담과정 및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 요인 중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전이 감정과 이러한 역전이 감정의 긍정적인 활용 및 관리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역전이는 전이와 더불어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담관계의 무의식적이고 비언어적인 측면으로, 비록 상담 장면에서 표현 빈도는 낮으나 행동으로 부적절하게 표현 될 경우 상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다(최명식, 2005). 따라서 역전이 감정이 역전이 행동으로 이끌어지지 않도록 상담과정에서 역전이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있어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최가희, 2002).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상담자 역전이는 Freud(1910)에 의해 처음 언급되면서 전이와 함께 치료관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초기 Freud에 의해 정의된 역전이는 내담자 이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상담 관계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간주되었으나 이 후 Kernberg를 포함한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역전이는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또한 소유하고 있음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임상경험과 연구결과들을 통해 역전이 반응의 효과적인 사용이 치료과정에서 진단적, 치료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Tansey & Burke, 1989). 이처럼 상담과정 속에서 역전이 반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역전이 반응의 효과적인 이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쌓임

에 따라 1990년대부터 역전이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Van 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이러한 모델 중 대표적인 역전이 모델인 역전이 관리 모델(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model)이 Van Wagoner 등(1991)에 의해 개발되었다. Van Wagoner 등(1991)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내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상담자 요인이 무엇인가를 개념화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과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자기통찰(self-insight), 자기통합(self-integration), 불안관리(anxiety-management), 공감능력(empathy ability), 개념화 기술(conceptualizing skills)등을 역전이 관리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는 요인들로 정의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많이 소유한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적을 것이며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그것을 상담자가 효과적으로 치료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정의하였다(Gelso, Fassinger, Gomez, & Latts, 1995; Hayes & Gelso, 1991; Hayes, Mc Clanahan, M. K. Hill, Harp, & Carozzoni, 1998; Robbins & Jolkovski, 1987; Van Wagoner et al., 1991). 이러한 역전이 관리능력은 역전이를 적절하게 개방하게 될 경우 치료자의 권위주의를 상쇄시킬 수 있어 내담자와 거리감을 줄일 수 있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보다 인간적으로 지각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이 치료관계의 불균형을 상쇄하여 결과적으로 깊은 작업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는 Hayes & Gelso(2001)의 연구와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자의 애착수준과 관련을 맺어 작업동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Hayes & Gelso, 2001; 윤희섭, 정현희, 2012; 윤정설, 2001; 장세미, 1999) 역전이를 효과적으

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신뢰 및 작업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오충광, 정남운, 2007) 선행연구들을 통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상담자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상담자 요인으로서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성과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및 역전이 관리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개인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상담과정 및 성과에 있어 역전이 관리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역전이 관리능력을 형성하게 하는 상담자 개인변인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이러한 역전이 관리능력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상담성과 및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 중 하나인 상담자 불안은 이러한 기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전이 관련 연구들에서는 역전이 감정에 대한 비효과적인 상담자 반응을 크게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접근해 왔다. 대표적인 행동적 반응으로는 상담자의 개인적 관여 및 철회, 그리고 회피 반응이 있고 인지적 반응으로는 내담자가 내놓은 자료의 생략, 과장 및 왜곡이 있으며 정서적 반응으로는 상담 장면에서 경험되는 일시적인 불안인 상태불안이 있다(장세미, 1999). 이 중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상담자의 불안은 상담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해도 상담자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행유형 및 수행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홍수현, 2001). 특히 상담 상황이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임을 전제할 때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불안으로서의 상담자 상태불안은 상담자의 미해결된 개인적인 문제, 상황적인 압력,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 상태 등에 대한 상담자의 지각과 많은 관련이 있고(Brammer, Shostrom, & Abrego, 1980) 객관적인 위협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지각된 긴장감, 염려, 신경과민 등의 반응으로서 정의되기에(장세미, 1999)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 중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반응을 연구한 초기 연구들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최명식, 2005).

상담자 상태불안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은 상담자들은 상태불안과 같은 부정적 역전이 양상을 적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Gelso et al., 2002; Peabody & Gelso, 1982; Robbins & Jolkovski, 1987; 장세미, 1999)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인 불안 관리와 자기 통합 요인과 상담자의 상태불안 사이에서의 부적 관계를 증명한 Gelso 등(1995)의 연구를 통해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인 상담자 불안이 역전이 관리과정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자의 상태불안과 작업동맹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상태불안은 상담자로 하여금 방어적이고 경직된 반응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내담자와의 깊은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음(Bandura, 1956; Yulis & Kiesler, 1968)이 확인되었고 홍수현(2001)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상태불안과 상담자,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사이에서 부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으로서의 상담자 상태불안은 상담성과 및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전이 관리능력의 기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된다.

더불어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두 사람이 지각하는 작업동맹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된다(홍수현, 2001). 따라서 역전이 감정에 대한 상담자의 효과적인 관리역량을 바탕으로 향상된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 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된다. 하지만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Horvath, 1994), 작업동맹 측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측정된 척도들은 교체할 수 없으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평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achelor, 1992)와 이러한 차이는 치료의 후반부 보다는 초반에 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경험적 결과(Mallinckrodt, 1993)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작업동맹과 내담자의 작업동맹을 각각 독립적인 잠재변인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요인을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자 상태불안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작업동맹 형성에 기여하는 상담자, 내담자 특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작업동맹에 기여하는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가 내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홍수현, 2001)을 고려하여 역전이 관리능력과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탐색을 통해 작업동맹 강화를 위한 상담자 개인 변인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상담 과정 및 성과와 관련된 상담자 특성 규명 연구들에 있어 역전이 관리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Van Wagoner et al., 1991)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과정 및 성과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제안(Gelso et al., 2002)에 비추어 상담자 상태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 과정에 미치는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으로서의 상담자 상태불안을 낮추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담자, 내담자가 평정하는 작업동맹을 향상시킨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상담자 상태불안의 부분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1(그림 1)과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2(그림 2)를 설정하여 각 변인들 간의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역전이 관리능력과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상태불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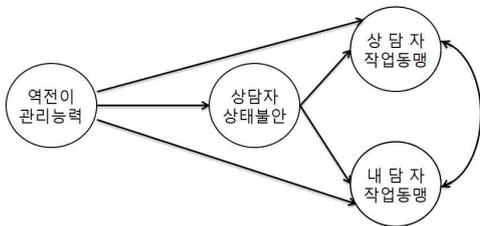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부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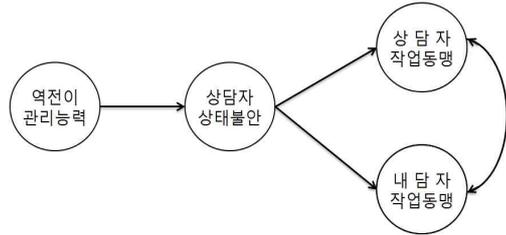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완전매개 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소재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8곳, 청소년상담센터 3곳, 위(Wee)센터 2곳, 건강가정지원센터 1곳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들과 각 상담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상담자 160부, 내담자 160부, 합계 총 320부가 배포되었고 이 중 상담자 118부, 내담자 118부 총 236부가 회수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상담자, 혹은 내담자만이 설문지에 참여한 경우, 그리고 해당 회기가 아닌데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 총 111쌍의 상담자-내담자 설문지가 최종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상담관계 요인 중 하나인 전이, 역전이 발생이 상담 초기에는 부각되지 않으며 (Hayes, Riker, & Ingram, 1997), 상담성공을 예언하는 작업동맹은 3-4회기가 진행된 이후에 안정된다는(윤희섭, 정현희, 2010) 연구결과에 따라 4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16세 이상의 학생 및 성인만을 내담자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은 내담자들 중 1명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상

표 1. 상담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N=111)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연령	20-29세	41(36.9)	상담경력	12개월 이상	33(29.7)
	30-39세	34(30.6)		12-60개월	54(48.6)
	40세 이상	36(32.4)		60개월 이상	22(19.8)
		무응답		2(1.8)	
학위	석사과정	44(39.6)	슈퍼비전 여부	유	105(94.6)
	석사수료	7(6.3)		무	5(4.5)
	석사학위	45(40.5)			
	박사과정	10(9)			
	박사수료	4(3.6)		무응답	1(0.9)
	박사학위	1(0.9)			
자격사항	상담심리전문가	9(8.1)	자격사항	놀이치료사	1(0.9)
	상담심리사	40(36)		미술치료사	6(5.4)
	임상심리전문가	1(0.9)		음악치료사	1(0.9)
	임상심리사	2(1.8)		수련생	43(38.7)
	청소년상담사	8(7.2)			

표 2. 내담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통계(N=111)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29(26.1)	상담영역	학업-진로	14(12.6)
	여	82(73.9)		대인관계	21(18.9)
구분	고등학생	30(27)		심리-정서	44(39.6)
	대학생	53(47.7)		성격-적응	13(11.7)
	대학원생	6(5.4)		결혼-이성	2(1.8)
	일반성인	22(19.8)		종교-가치관	3(2.7)
				가족관계	14(12.6)

담자-내담자 조건은 표 1과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14년 3월부

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지역의 8개의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및 6개의 상담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무 담당자 및 상담자에게 연구 내용과 설문지에 대한 설명 후 설문참여를 의뢰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있어서 평가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응답자들의 선입견이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내용 안내 시 자세한 연구 변인들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는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임을 명시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 설문지는 모두 밀봉 상태로 전달되었고 상담자에게는 접수상담을 제외한 4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내담자 중 한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상담 종료 직후 설문지를 개봉하여 내담자와 함께 바로 직전의 상담 장면을 떠올리며 설문을 실시하도록 안내 하였다. 설문내용이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설문지 작성 후 별도로 준비된 봉투에 자신이 직접 넣어 밀봉한 후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대한 보상으로 상담자에게는 가방, 내담자에게는 볼펜이 지급되었고 설문지는 배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자에 의해 직접 회수되거나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상담자용 설문지에는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 상담자 상태불안 질문지, 작업동맹 및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었고 내담자용 질문지에는 작업동맹 질문지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도구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Van Wagoner 등(1991)이 개발하고 장세미(1999)에 의해 번안된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통찰(self-insight), 공감능력(empathy ability), 자기통합(self-integration), 불안관리(anxiety management), 개념화 기술(conceptualizing skills)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

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도록 되어있다. CFI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Van Wagoner 등(1991)에 의해 확인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으로 확인되었다. 역전이 관리능력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자기통찰은 .69, 자기통합은 .75, 공감능력은 .80, 불안관리는 .78, 개념화기술은 .82로 확인되었다.

작업동맹 척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Horvath & Greenberg(1989)가 개발하고 강혜영(1995)에 의해 번안된 작업동맹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합의(goal), 과제동의(task), 유대(bond)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도록 되어있다. WAI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작업동맹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혜영(1995)에 의해 확인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신뢰도는 .93,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신뢰도는 .95로 확인되었다.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하위요인 중 유대는 .81, 목표합의는 .84, 과제동의는 .84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하위요인 중 유대는 .89, 목표합의는 .88, 과제동의는 .87의 신뢰도를 보였다.

상태불안 척도

상담자가 지각한 상태불안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가

개발하고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1996)에 의해 변인 타당화된 상태-특성 불안 검사지 Y형(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Y:STAI-Y) 중 상태불안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서는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4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도록 되어있다. STAI-Y에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덕웅, 이장호 및 전겸구(1996)에 의해 확인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로 확인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기초 통계분석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 구조모형 및 매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델 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합도지수인 χ^2 검증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x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통해 알아보았다. CFI와 TLI 지수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 지수는 <.05는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부적합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전체점수는 역전이 관리능력의 전체점수($r = .53$),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인 자기통찰($r = .27$), 자기통합($r = .42$), 공감능력($r = .53$), 불안관리($r = .44$), 개념화 기술($r = .50$)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역전이 관리능력 전체점수는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r = .53$), 하위요인인 유대($r = .49$), 목표합의($r = .51$), 과제동의($r = .45$)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담자 상태불안은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전체점수($r = -.59$), 하위요인인 유대($r = -.54$), 목표합의($r = -.53$), 과제동의($r = -.52$)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상담자 상태불안은 역전이 관리능력 전체점수($r = -.62$),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인 자기통합($r = -.58$), 공감능력($r = -.57$), 불안관리($r = -.66$), 개념화기술($r = -.56$)은 상담자 상태불안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측정모형검증

측정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04.292(df = 59)$, $p < .001$, CFI = .956, NFI = .906, TLI = .942, RMSEA = .084, SRMR = .054. 역전이 관리능력, 상담자 상태불안, 작업동맹 모든 하위요인은 .50에서 .99 사이의 요인 부하량을 가졌으며 문항꾸러미 제작(item parcelling)에 의해 하위요인을 제작한 상담자

표 3.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기초통계량(N=111)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3-3	4
1	1														
1-1	.65**	1													
1-2	.88**	.43**	1												
1-3	.89**	.50**	.76**	1											
1-4	.81**	.32**	.69**	.62**	1										
1-5	.86**	.45**	.45**	.74**	.65**	1									
2	.53**	.27**	.42**	.53**	.44**	.50**	1								
2-1	.49**	.29**	.40**	.44**	.45**	.41**	.87**	1							
2-2	.51**	.24**	.40**	.54**	.38**	.52**	.91**	.64**	1						
2-3	.45**	.19*	.08	.48**	.36**	.42**	.94**	.76**	.82**	1					
3	.10	-.01	.08	.17	.13	.02	.23*	.16	.27**	.20*	1				
3-1	.07	-.06	.07	.14	.16	-.002	.22*	.17	.23*	.19*	.91**	1			
3-2	.10	.03	.08	.14	.10	.06	.20*	.12	.26**	.17	.92**	.71**	1		
3-3	.10	-.00	.08	.18	.12	.04	.22*	.16	.25**	.18	.96**	.82**	.85**	1	
4	-.62**	-.17	-.58**	-.57**	-.66**	-.56**	-.59**	-.54**	-.53**	-.52**	-.12	-.10	-.13	-.12	1
M	178.62	40.77	40.47	38.19	27.57	31.63	188.75	65.74	58.89	64.12	200.92	67.48	65.64	67.80	41.05
SD	16.67	3.84	3.92	4.49	4.07	3.95	19.59	6.92	7.70	6.96	24.86	9.41	9.41	8.54	8.19

주. 1.역전이 관리능력, 1-1. 자기통찰, 1-2. 자기통합, 1-3. 공감능력, 1-4. 불안관리, 1-5. 개념화기술, 2. 작업동맹(상), 2-1. 유대, 2-2. 목표, 2-3. 과제, 3. 작업동맹(내), 3-1. 유대, 3-2. 목표, 3-3. 과제, 4. 상태불안, * $p < .05$, ** $p < .01$, *** $p < .001$.

상태불안 역시 .83에서 .95 사이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을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들의 적합도를 구조방식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모형 1의 적합도는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07.718(df=60)$, $p < .001$, CFI = .954, NFI = .903,

TLI = .940, RMSEA = .085, SRMR = .068. 한편 모형 2의 적합도 역시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110.833(df=62)$, $p < .001$, CFI = .953, NFI = .901, TLI = .941, RMSEA = .085, SRMR = .075. χ^2 차이검정을 통하여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표 5) 두 모형간의 적합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SDT [df = 2] = 3.115, $p > .05$). 즉, 본 연구모형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역전이 관리능력에서 상담자, 내담자의 작업동맹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상실할 필요가 없음을

표 4.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 E.	C. R.
역전이 관리능력				
개념화 기술	1	.830		
불안관리	.981	.790	.102	9.599***
공감능력	1.186	.866	.108	10.998***
자기통합	1.043	.873	.094	11.112***
자기통찰	.581	.495	.109	5.328***
상태불안				
상태불안 1	1	.952		
상태불안 2	.713	.831	.068	10.491***
상담자 작업동맹				
과제동의	1	.940		
목표합의	1.015	.862	.079	12.834***
유대	.843	.797	.076	11.143***
내담자 작업동맹				
과제동의	1	.985		
목표합의	.962	.861	.068	14.200***
유대	.872	.830	.067	13.041***

표 5. 연구모형 1, 2의 적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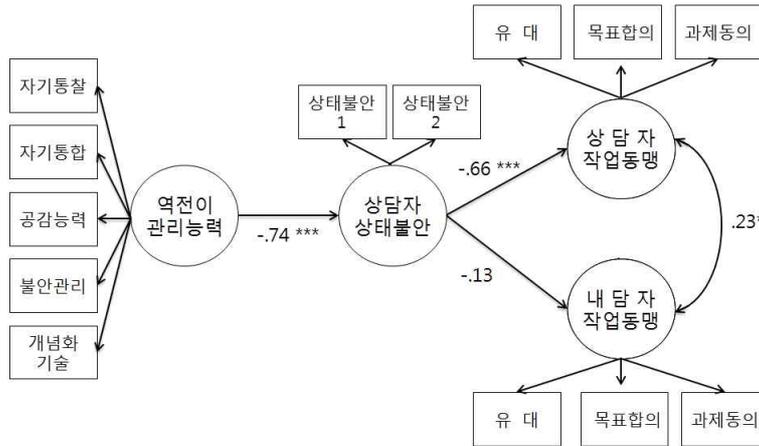
모형	χ^2	df	CFI	NFI	TLI	RMSEA	SRMR	$\Delta\chi^2$
부분매개 (연구모형 1)	107.718***	60	.954	.903	.940	.085	.068	3.115
완전매개 (연구모형 2)	110.833***	62	.953	.901	.941	.085	.075	

주. *** $p < .001$.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2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3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

에서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상태불안, 상담자 상태불안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의 직접효과는 유의미 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전이 관리능력은 상담자 상태불안에 부적영향



주.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5$, *** $p < .001$.

그림 3. 최종 경로구조모형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값

경로	B	β	S.E	t
역전이 관리능력 → 상담자 상태불안	-.742	-.740	.103	-7.202***
상담자 상태불안 → 상담자 작업동맹	-1.068	-.663	.174	-6.130***
역전이 관리능력 → 내담자 작업동맹	-.337	-.131	.259	-1.302

주. *** $p < .001$.

을, 상담자 상태불안은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자 상태불안과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대한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상태불안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관계로 작업동맹을 상담자와 내담자로 각각 분리한 단순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상태불안,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관계에서의 직, 간접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모형의 매개효과검증

이 후 지지된 모형 2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역전이 관리능력에서 상담자 상태불안을 통해 상담자의 작업동맹으로 향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진행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의 신뢰구간(.477, 1.144)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전이 관리능력에서 상담자 상태불안을 통해 내담자의 작업동맹으로 향하는 간접효과는 95%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진행된

표 7.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변수의 유의미성 검증

효과	경로	Estimate(B)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95%	upper 95%
직접효과	a	-.742	.111	-.983	-.539
	b	-1.068	.200	-1.509	-.693
	c	-.337	.276	-.859	.223
간접효과	a × b	.792	.171	.477	1.144
	a × c	.250	.212	-.154	.681

주. N = 111, Bootstrap samples = 2000, Estimate는 비표준화된 계수.

a. 역전이 관리능력 → 상담자 상태불안, b. 상담자 상태불안 → 상담자 작업동맹, c. 상담자 상태불안 → 내담자 작업동맹, a × b. 역전이 관리능력 → 상담자 상태불안 → 상담자 작업동맹, a × c. 역전이 관리능력 → 상담자 상태불안 → 내담자 작업동맹.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의 신뢰구간(-.154, .681)에서 0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자 상태불안이 매개하는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 표준오차, 신뢰구간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자, 내담자의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상담자 상태불안이 매개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확인을 통해 상담자 역전이 관리능력, 상태불안,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의 작업동맹과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 상태불안은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의 직접효과가 없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전이 관리능력 수준이 높은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낮은 수준의 상태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낮은 수준의 상태불안은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Gelso & Hayes(1998)가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긍정적인 상담성고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역전이 반응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무의식적인 역전이 출현을 통제하게 되어 상담결과 및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Hayes et al., 1998; Hayes & Gelso, 2001; Little, 1951; Peabody & Gelso, 1982). 또한 역전이의 비효과적인 반응인 상담자의 상태불안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부적 관계 확인을 통해, 상담자의

상태불안이 역전이 반응의 효과적인 관리 과정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재확인 할 수 있었고 (Bandura, 1956; Gelso et al., 1995; Hayes & Gelso, 1991; Yulis & Kiesler, 1968; 장세미, 1999) 상담자 상태불안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간에 확인된 부적 관계를 통해서도 상담자가 상담 상황에서 불안을 덜 경험할수록 내담자와 더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Bandura(1956)와 Yulis & Kiesler(1968)의 연구 결과와 상담자 상태불안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사이에서의 부적관계를 확인한 홍수현(2001)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역전이 반응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역전이의 내적반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담자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과정 (Hayes, Gelso, & Hummel, 2011)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역전이에 대한 자각을 높이기 위한 상담자의 전문화된 교육 및 이러한 역전이에 대한 느낌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슈퍼비전이나 개인분석의 필요성 (한은주, 2013)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간의 관계에서 상담자 상태불안의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즉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은 상담자의 상태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자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덜 느끼게 되고, 이러한 낮은 상담자의 불안은 높은 수준의 상담자 작업동맹과 연결된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과정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역전이 관리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역전이 관리능력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주요 연구주제로 거론해 왔다는 점(Gelso et al., 2002)과 작업동맹을 높이기 위한 상담자 변인의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김현숙, 2012)에서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상담 과정에서의 역전이 관리능력의 기제와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개인변인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동맹 검증에 있어서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 이외에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검증하였다. 역전이 관리능력과 작업동맹과 관련된 이전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을 제외하고 상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기에 이러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역전이 관리능력은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있어 직접,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점은 상담자의 역전이 활용능력이 상담자가 평정한 상담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내담자가 평정한 상담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과도 부분적으로 부합된다(이영순, 2010; 임고운, 2008). 역전이 관리능력이나 상담자 상태불안이 모두 상담자가 보고한 변인이기 때문에 두 변수가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작업동맹에 대한 상담자, 내담자의 인식의

표 8. 작업동맹 전체점수 및 하위요인 점수에 대한 상담자, 내담자 집단 간 차이 검증

	상담자(N=111)		내담자(N=111)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작업동맹	188.748	19.593	200.919	24.861	-4.051***
유대	65.739	6.919	67.478	8.847	-1.631
목표합의	58.892	7.700	65.640	9.408	-5.848***
과제동의	64.117	6.957	67.802	8.544	-3.523***

차이에서 접근해 볼 때 의미 있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담자,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의 전체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전체점수를 보고하였고[t(220)=-4.051, $p<.001$] 작업동맹의 하위요인에 있어서도 유대를 제외한 목표합의[t(220)=-5.848, $p<.01$]와 과제동의[t(220)=-3.523, $p<.001$]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간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r = .23$)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작업동맹을 지각하는 데 있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Horvath & Bedi, 2002; Horvath & Symonds, 1991) 내담자가 작업동맹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소진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내담자만큼 높은 평가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한 한은주(2011)의 연구들을 참고해 볼 때 부정적인 역전이 반응에 대한 상담자의 통제 노력이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역전이 관리능력과 내담자의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담자 고유 변인이 본 연구모형에서 충분히 설정되지 않아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대한 상담자 역전이 관리의 영향력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을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안정적, 선형적, U자형 등과 같은 내담자의 다양한 작업동맹 발달 패턴(Kivlighan & Shaughnessy, 2000)을 고려해 볼 때 최소 4회 이상 상담진행만을 기준으로 작업동맹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역전이 관리를 통해 형성되는 내담자의 작업동맹 변화를 적절히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모형에 내담자 고유변인이 추가되고 상담 중반 이후 사례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되었다면 내담자가 평정한 작업동맹에 대한 역전이 관리능력의 직,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가정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주제와 관련하여 대인관계, 심리-정서, 혹은 성격-적응과 관련된 사례들의 비중이 높으며 내담자 구성에 있어 모든 연령대가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균등하게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점은 상담 상황에서 상담자 역전이 발생 빈도 및 역전이 관리 및 활용 정도가 대인관계나 성격 등의 주제와 관련된 상담사례에서 높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한은주, 2013), 그리고 역전이 관리능력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진로를 주제로 한 상담사례를 사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상담 사례 및 표본 구

성을 통한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가 어떻게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와 관련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측정에 있어서 상담자의 자기보고식 질문을 사용하였다. 상담자의 역전이를 측정하는 것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내적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사용은 역전이 관리능력의 객관적 측정에 있어 용이하지 못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능력 측정에 있어 상담자 스스로의 보고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상담 장면의 녹화자료나 축여록의 반응 분석을 통해,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평가를 통한 역전이 관리 측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능력과 작업동맹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를 상담자 상태불안만으로 제한하였다. 상담자들이 보이는 역전이 행동으로는 상담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자료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철회행동, 과도한 침묵이나 문제를 과대포장 또는 축소 은폐하는 행동, 그리고 과도한 개입 행동과 같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황인호, 2005).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효과적인 역전이 관리 과정이 위와 같은 부정적 역전이 반응들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반응

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여부가 상담과정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 과정 및 성과 간의 여러 매커니즘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경력 수준이 60개월 미만인 상담자가 전체표본의 78%를 차지하였고 상담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를 제외한 상담자들 및 수련생들은 전체표본의 56%를 차지하였다. 역전이 관리는 상담경력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상담경력이 높을수록 상담자는 자신의 역전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적 개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윤희섭, 정현희, 2010; 임고운, 2008; 황인호, 2005)을 고려해 볼 때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간의 역전이 관리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더 많은 상담자 표본을 모집하여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 집단을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면 상담자 경력에 따른 매개효과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심상담자, 숙련상담자 모두 표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경력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경력과 관련하여 충분한 표집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AMOS를 이용한 분석 시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미지수의 5-10배 정도를 표본으로 사용해야 하고(Bentler & Chou, 1987) 최소 150명 이상의 표본이 자료 분석에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본 연구모형의 추정 모수치는 29-31개였고 따라서 적어도 15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못 미치는 111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특수성과 모형검증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적합도가 확보되어 111개의 자료로 연구모형 검증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표본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숙 (2012). 상담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작업동맹과의 관계에서 역전이 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379-2393.
- 신희천 (2002). 내담자의 핵심적 갈등 관계에 대한 해석과 작업동맹이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85-299.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 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윤정설 (2001). 상담자의 성격특성 및 경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섭, 정현희 (2010).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발달수준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 상담학연구, 11(2), 485-505.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 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463-2482.
- 이영순 (2010). 초보 상담자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관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제 3판). 서울: 박영사.
- 임고운 (2008).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활용에 따른 상담성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가희 (2002).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45-862.
- 최명식 (2005). 역전이 활용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한은주 (2011).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도의 관계: 상담협력관계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주 (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도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 홍수현 (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Anderson, J.,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chelor, A. (1992). *Variability of dimensions of the therapeutic alliance and alliance predictors of impro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Berkeley, CA.
- Bandura, A. (1956). Psychotherapist's anxiety level, self-insight, and psychotherapeutic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2, 333-337.
- Bentler, P. M., Chou, C. P. (1987).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Brammer, L. M., Shostrom, E. L., & Abrego, P. J. (1980). *Therapeutic psychology: Fundamental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5th Ed)*.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Freud, S. (1910). *The Future Prospects of Psychoanalytic therapy*. Essential Paper on Countertransferen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96-306.
- Gelso, C. J., Fassinger, R. E., Gomez, M. J., & Latts, M. G. (1995).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to lesbian clients: The role of homophobia, counselor gender,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 Gelso, C. J., & Hayes, J. A. (1998).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Gelso, C. J., L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R. E. (200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861-867.
- Greenson, R. R. (1965).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transference neuroses. *Psychoanalysis Quarterly*, 34, 155-181.
- Hayes, J. A., Gelso, C. J. (1991). Effect of therapist's anxiety and empathy on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2), 284-290.
- Hayes, J. A., Riker, J. R., & Ingram, K. M. (1997).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management in brief counseling: A field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7(2), 145-153.
- Hayes, J. A., Mc Clanahan, M. K. Hill, C. E., Harp, J. S., & Carozzoni, P. (1998). Therapist perspectives Countertransference: Qualitative data in search of a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468-482.
- Hayes, J. A., & Gelso, C. J. (2001).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Countertransference: Science informing practice. In s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 1041-1053.
- Hayes, J. A., Gelso, C. J., & Hummel, A. M. (2011).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Psychotherapy*, 48(1), 88-97.
- Horvath, A. O. (1994). Research on the alliance. In A. O. Horvath & L. S. Greenberg(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 practice*. Jhon Wiley & Sons, INC.: New York.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36*, 223-23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9-149.
- Horvath, A. O., & Bedi, R. P. (2002). The alliance. In J. C. 93 Norcross(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ivlighan, D. M., & Shaughnessy, P. (2000). Patterns of working alliance development: A typology of working alliance rating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2-371.
- Little, M. (195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patient's response to i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2*, 32-40.
- Mallinckrodt, B. (1993). Session impact, working alliance, and treatment outcome in b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25-32.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ing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tin, D. J., Garske, J. P., & Davis, M. K. (2000). Relation of the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3), 438-450.
- Peabody, S. A., & Gelso, C. J. (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40-245.
- Robbins, S. B., & Jolkovski, M. P. (1987).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feelings: An interactional model using awareness of feeling and theoretical frame 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76-282.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Tansey, M. J., & Burke, W. F. (1989). *Understanding countertransference: From projective identification to empathy*. Hillsdale, N J: The Analytic Press.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 Yulis, S., & Kiesler, D. J. (1968). countertransference response as a function of therapist anxiety and content of patient tal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14-419.

원 고 접 수 일 : 2015. 11. 04

수정 원고접수일 : 2016. 04. 06

게 재 결 정 일 : 2016. 05. 11

**The effect of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working alliance:
Mediating role of counselor's state anxiety**

Taek-June Kim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unselor state anxiety and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the working alliance. For this purpose, countertransference factors, working alliance and state anxiety inventories were administered to 111 counselors and clients. Client participants were over the age of 16 and counselors included both university and youth counseling center employees. In order to explore countertransference's effect on the working alliance, counseling sessions were restricted to no more than 4 session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showed that counselor's state anxiety completely mediated both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the counselor's working alliance. This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s role on both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counseling process. Findings and furth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working alliance, state anxiety, countertransference